

시, 인공지능 공공의료서비스 본격 시동 걸었다

전국 지자체 최초 AI융합 선진의료시스템 개발 시민체감 제1호사업 지정·의료앱·플랫폼 구축

광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 및 보건의료, 지역 병·의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체감형 'AI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AI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은 시민들에게 AI의료정보를 통해 맞춤형 AI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병·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AI의료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광주 시민체감 제1호 사업

이다. 시민들은 개인 주치의가 될 AI시민 의료앱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병·의원은 AI의료지원플랫폼 지원사업에 모두가 참여할 때 가능하다.

지난 2월 AI 시민체감 제1호 사업으로 지정해 AI 시민의료앱과 의료지원플랫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앱 및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AI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은 광주시민 대상 AI시민의료앱 보급과 5개 보건소 및

지역 2,200여개 병·의원 대상 AI의료지원플랫폼 지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이용 고령자 대상 AI헬스케어실증센터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AI시민의료앱'은 본인의 진단·검진·처방기록, X-ray, MRI 등의 의료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촬영한 의료영상을 CD 등에 저장하지 않고도 AI시민의료앱을 통해 대학병원 등에서 온라인으로 판독과 협진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돼 본인의 과거 병력 등의 진료·처방 기록의 열람이 가능하고 향후 병원 방문, 응급 치료시 의사에게 제공해 보다 정확한 진료·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해 활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건강관리 의료앱으로 진료를 받기 위한 병원간 왕래 시간 단축, 저장매체(CD) 불필요 등 많은 시민들이 AI의료서비스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AI시민의료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시 과거의 병력, 약국 등의 진료·처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AI의료지원플랫폼'은 K-FDA(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획득한 흉부 진단, 부동맥 진단, 골연령 분석 등 AI진단지원 서비스 12종을 탑재해 담당의사의 진료와 판독시간 단축과 검진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된다.

AI의료지원플랫폼을 통해 생성된 의료 데이터는 과기부에서 인증하는 클라우드

기반 광주 국가데이터센터에 저장되며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는 신뢰성이 높은 최상의 보안설비로 관리된다. 올해는 관내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 대상으로 의료기관 100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공모를 통해 1차로 전대병원 등 15개 병·의원을 선정했으며 2차로 80개 병·의원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 공고 중이다.

지역 병·의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의료지원플랫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헬스케어실증센터'는 하루 3,000명 이상 이용하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에 AI헬스케어실증장비를 구축해 고령자 대상으로 기초검진·재활 등을 위한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증장비는 보행패턴 등 분석을 위한 전신반응분석시스템, 근육 활성도 분석을 위한 무선근전도분석기, 신체 균형능력 측정을 위한 균형능력측정 및 훈련시스템 등 11종을 구축하고 운영기관 선정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지난 6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AI시민의료앱은 여기서 생성된 이용자 본인 기초검진·재활 데이터와 병원 및 약국 진료·처방 데이터 등을 평생 관리하고 응급시 담당의사에게 즉시 제공해 신속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AI주치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AI헬스케어 실증센터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손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공공의료서비스 사업 성공은 시민과 지역 병·의원이 참여가 절대적이다"며 "광주만의 세계적인 AI선진의료서비스 제공과 AI헬스케어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인천공항 도착한 화이자 백신 우리 정부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직접 계약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추가로 들어온 22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백신을 화물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

나주·담양·장성·함평·화순 단일권역 발전방향 제시 연말까지 국토계획평가·주민공청회 거쳐 내년 완료

광주시는 전남도와 함께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주 시와 나주, 담양, 장성, 함평, 화순 등 인접 5개 지역을 단일권역으로 설정하고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공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체계를 구축해 지역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장기전략 계획이다.

현재 광주 대도시권의 지역현황을 바탕으로 지역의 잠재력과 발전·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전방향과 미래상

을 도출했고, 향후 광역토지이용계획과 광역시설 계획 등을 바탕으로 광주와 전남의 상호 협력 거버넌스를 체계화 할 예정이다.

광주대도시권의 미래 공간 구조를 제시하고 권역별 발전구상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수요와 합리적 조정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도시권 주변지역의 보전과 개발의 기준을 정립하는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후 연말까지 국토계획평가와 주민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 초까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협의의

진행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해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상반기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도는 국토종합계획과 전남도 계획, 광주시 도시계획 등의 상위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내용을 공유하고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마련한다. 시는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광주대도시권이 국토 서남권의 핵심 권역과 호남권의 '중심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주와 전남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예정지역 등을 대상으로 광주권의 새로운 위상을 재정립하고 미래 신규 가용토지 확보 근거를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내달부터 수급자 본인 소득·재산 등 적용

광주시는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선정기구의 소득·재산 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해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 원 초과)인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로 앞당겨 추진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신청)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한다.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지급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와 5개 자치구는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5·18기록관, 1980년 미국 기록문서 공개

미 정부기관 문서 882쪽... 홈페이지 게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하 5·18 기록관)은 1980년대 미국 기록문서 882쪽을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록문서는 1980년 당시 미국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문서를,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전달받아 5·18기록관에 제공했다.

총 882쪽으로 구성된 문서는 1979년 10월부터 1980년까지 미국 기관에서

입수하고 작성한 정보가 담겨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기록한 미국정부 기관(국무부, 국방부, CIA, 한국주재 미대사관 등)의 문서이다.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일부이기도 하다. 현재 등재기록물은 총 3471쪽이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난 6월과 7월에도 비밀해제 된 미국측 문서를 전달

받아 5·18기록관에 제공했으며, 5·18 기록관에서는 홈페이지에 해당 문서를 게시해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했다.

홍인화 5·18연구실장은 "1979년과 1980년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5·18 당시 상황을 기록한 미국측 문서가 계속 공개되고 있다"며 "기록관은 입수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원문을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말로 번역해 쉽게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광고국 062) 720-1016, 1017
팩스 062) 720-1020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지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투고글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할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62-417-4717 / 010-4675-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끝을 간질여도
거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씁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